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 본인 및 배우자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Study of Variable Factors Affecting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Related Variable of Myself and Partner

중앙대학교 가정학과

박 사 김 효 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박 정 윤***

Dept. of Home Ecomics Chung-Ang Univ.

Doctor : Kim, Hyo-Min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Park, Jeong-Yun

<Abstract>

In the study of married couples, there has been a great lack of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spouses until now. In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couples living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November 20 to December 20, 2009, and data on 184 coupl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e analysis. The SPSS 17.0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ives. And the variables of spousal support, alternative comparison level and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were also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f-variables had a greater effect than partner variables o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Third,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depended on the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health of origin of family, parenting efficacy), the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al support, spousal similarity, recovery attempts), and the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주요어(Key Words) :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개인자원변인(individual resource variable), 부부관계변인(couple relationship variable), 대안의 비교수준 변인(comparison of level alternative variabl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핵심적 단위인 가족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의 구조는 다양해지고, 기능은 상당부분 사회로 이전되거나 공유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부부관계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애혼의 증가, 핵가족화,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면서 더 많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 내용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임.

** 주 저 자 : 김효민 (E-mail : hmkim4860@naver.com)

*** 교신저자 : 박정윤 (E-mail : pjy4838@cau.ac.kr)

행복한 부부관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부부가 상호간에 주고받는 정서적 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결혼에서 비롯되어진다. 부부는 가족 내에서 가장 친밀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특성 때문에 부부간의 애정과 친밀감이 감소하면 상호기대가 어긋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이 부부갈등으로 표면화되고,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는 통계청(2012)의 자료에 의하면 조이혼율이 1998년에 2.5에서 2003년에 3.4로 조이혼율이 정점에 이른 후, 2011년에 2.3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혼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대의 부부관계는 가족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관계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측면과 함께 이혼율 등의 요인으로 관계의 불안정이나 불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결혼을 위해서 부부 상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가트만(Gottman)의 연구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으로 인해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수명이 단축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이 부부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Karney & Bradbury, 1995), 이혼의 가장 큰 예측 변인 중 하나가 결혼만족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며, 지속적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혼만족도에 대한 다측면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들은 대상면에서 부부 중 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고, 인구학적 변인이나 개인적 몇몇 변인들의 영향력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경향이 있다.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들을 보면 대상면에서 기혼여성이나 다수를 차지하며 최근에는 기혼남성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증가하고 있으나(Hwang, 2005; Kim, 2007; Kim, 2007; Kim, 2009; Seo, 2008) 그 또한 부부 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부쌍의 결혼만족도 양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된다. 부부의 결혼만족도 지각차이와 이에 관련된 변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만족도 양상의 부부차이를 밝히고, 영향변인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부부쌍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선행연구(Nam, 2009; Park et al, 2004)를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인(Hong, 2006; Jang, 2008; Kim, 2007; Lee, 2006; Seo, 2007)이나 개인심리 변인(Kim, 2002; Park et al, 2005)에 치중되어 있는데 결혼만족도는 개인심리변인 뿐만 아니라 원가족 변인이나 관계변인, 결혼유지와 관련된 변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향이 있는 변인들은 당사자 변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배우자의 변인이 영향을 어떤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결혼만족도 양상고찰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종합적 관점으로 결혼만족도 양상과 관련 변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부관계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적용이 가능한데 그 중 하나인 사회교환론적 관점이다. 사회교환론은 개인이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성격을 지닌 사람들과 관계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욕구도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유계숙 등, 2003).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결혼생활의 만족감은 서로의 관계에서 받는 보상이 크다고 지각하거나 비교대안수준이 현재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지각할 때 높을 수 있다. 결혼만족도가 부부 당사자가 갖는 자원이거나 상호작용요인이 아니더라도 결혼과 관련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혼만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결혼만족도에 영향변인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다룬 결혼만족도 연구를 심도있게 관련 이론의 개념들을 변인으로 포함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사회교환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의 개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변인이 자기변인과 배우자 변인의 영향력의 차이를 고찰하여 결혼만족도의 양상을 보다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는 시도를 하고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에게 갖는 연구대상의 한계점인 기혼남녀 각각을 다루었던 점을 보완하여 부부 쌍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 양상의 차이를 고찰하고, 결혼만족의 영향요인이 부부쌍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본인과 배우자의 요인에 대한 자기와 배우자 지각의 차이, 대안수준의 정도가 주는 영향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관련변인들 경향성의 부부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자기/배우자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 차이가 결혼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교환 이론과 결혼만족도

1970년 이후 사회교환론적 관점이 결혼과 가족의 연구에 적용되고 응용되어 확산되면서 가족학 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로 부상되었다. 특히 사회교환이론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성 과정, 즉 '주고받기' 혹은 '교환과정'을 심리학적 원리에 기반하여 설명한 이론으로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으로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타 이론보다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부부관계를 고찰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사회교환이론을 주장한 호만스(Homans, 1961)는 '인간의 교환에서 공공연한 비밀은 자신에게 비용이 드는 행동보다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타인에게 제공하며, 타인에게 비용이 드는 행동보다 더 가치 있는 행동을 자신에게 취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어떤 특정 행위의 가능성은 과거에 받은 보상의 빈도, 받은 보상의 가치, 과거에 보상을 받은 행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의 유사성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이익이나 보상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다. 블라우(Blau, 1964)는 교환행위를 '되돌려 받기를 원하면서 행하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적 행위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 행위가 중시되는 반면,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되는 행동의 반응을 얻었을 때에는 행위가 계속된다고 보았다(유계숙 등, 2003).

사회교환론적 개념들은 교환관계와 함께 관계의 형성·유지·해체·관계를 특징짓는 역동성을 중재하는 요인들에 관심을 갖는다.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해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정도구는 결혼만족도이다.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으로 결혼만족도를 보면 부부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배우자로부터 보상을 얻으려고 배우자가 원하는 행동을 지속시켜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따라서 부부는 오랜 생활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고, 배우자와 유사한 가치관과 행동패턴을 유지하며, 상호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지속할 때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남편은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화해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내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잘 해 준다면, 이러한 능력은 서로 교환자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가족원들이 상이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는 경우보다 유사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질 때 가족의 응집력이 높아지고, 이는 가족원들에게 보상이 되며, 결국 가족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응집력으로 작용하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았다(Kim, 1994). 사회교환이론을 적용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교환자원에 대한 보상인자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있다(Seo, 2007). Seo의 연구는 교환자원 자체가 보상으로의 의미를 가지는지를 밝히는 수준이며 사회교환이론의 다른 개념 중 하나인 대안수준이나 비교대안수준과 같은 변인들을 포함하여 결혼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사회교환론적 관점의 주요변인들은 결혼만족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위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교환론적 측면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자기변인과 배우자 변인을 밝히고자 한다.

2.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결혼만족도 연구는 가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때와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1970년대의 결혼만족도 척도개발 연구(Norton, 1983; Roach, Frazier & Sabatelli, 1984; Snyder, 1979; Spanier, 1976; 정현숙, 2001 재인용)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의 결혼만족도 연구의 동향을 연구대상 면부터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혼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Choi, 2008; Hong, 2009; Ko, 2004; Suh, 2008; Yeo, 2009). Suh(2008)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을 살펴보았는데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이 낮을수록, 결혼해제 장애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사회교환론적 개념을 부분 적용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Choi(2008)와 Ko(2004)는 각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Ko의 경우 연령별 결혼만족도에는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연령별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Yeo(2009)는 연애결혼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기혼여성보다는 양적으로 미미하지만 몇몇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Kim, 2009; Jeong, 2009). Kim(2009)은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를 하위변인별로 경향성을 밝히고 있으며, Jeong(2009)는 결혼이민자 가정 내 한국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한편, 기혼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다(Kim, 2007; Kim, 2007). Kim(2007)은 원가족 규칙과 분화 및 양성평등이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밝혔고, Kim(2007)은 부부의 의사소통유형,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관련성 연구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결혼만족도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2007)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용서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의 상호용서는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침을 밝혔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상별 특성은 기혼 남녀 일방을 다루는 연구가 다수였고, 기혼남녀를 동시에 다룬 경우도 부부 쌍 대상 연구가 아니라 단순한 남녀비교를 하는 수준으로 부부 쌍대상의 연구를 통해서 부부의 결혼만족도 양상과 관련변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유목화하며 인구학적 변인, 개인적 변인, 관계변인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수입, 가족주기, 종교, 직업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았고(Hong, 2006; Jang, 2008).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Lee(2006) 연구, Shin(2007) 모두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교육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8; Jeong, 2008; Lee, 2006). 자녀수와 결혼만족도와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보고도 있고, Jeong(2008)은 자녀수가 영향변이니 아님을 밝히기도 하였다. 가족수입 변인은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Jang, 2008; Jeong, 2008). 종교 변인 역시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Jeong, 2008). 직업 변인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Cho, 2006; Jeong, 2008). 인구학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자별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경향이였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을 심리적 특성으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원가족 건강성, 부모효능감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고(Kim, 2002; Park & Ko, 2005), 원가족의 정서분위기가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였고(Benson et al, 1993; Cunningham, 1991; Shin, 2007) Yang(2004)과 Jang(2008)도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친밀감이 정적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으나 양육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4). Lee(2002)는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효능감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였다.

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부관계 변인으로 본 연구는 부부의 유사성, 배우자지지, 회복시도 변인 등을 포함한다. Ko & Jeon(2003)는 부부간의 결혼가치관 유사성 크기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부부 상호간의 지지도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 2004; Yoo, 2003). Yoo(2003)의 여성노인의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연구에서 부부간 정서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지각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Kim(1994)의 연구에서 결혼해체 장애는 결혼안정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힘에서 볼 때 사회교환이론의 개념 중 하나인 결혼에 대한 비교수준이나 대안의 비교수준과 같은 변인들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에서 이러한 변인의 영향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20세 이상의 전 연령층의 결혼한 부부이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부 쌍으로 선정하였으며, 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표집, 눈덩이 표집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9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10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문지의 적합성과 질문의 모호성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0년 1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2부씩(남편용·아내용)을 직접 혹은 우편, 그리고 e-mail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질문지를 2부씩(남편용·아내용) 봉투에 넣은 후, 응답자 부부에게 직접 혹은 우편으로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20대와 30대는 e-mail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부부 250쌍에게 배포되었고, 196쌍의 자료가 수거되어 수거율은 79%였다. 그 중에서 성의 없는 응답이나 결측치가 있어 분석하기 어려운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 186쌍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Table> 1 참조)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로부터 받는 여러 보상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 결혼만족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Lee(2007)가 사용한 척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 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와 배우자에게 갖는 기대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이며 총 10문항

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총점이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2였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913으로 나타났다.

2) 개인자원 변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의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 그리고 존경의 정도가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에 근접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 SES)를 전병제(1974)가 번안하고 Lee(2007)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는지, 자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10이었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777으로 나타났다.

(2) 원가족 건강성

원가족 건강성은 어린 시절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한 정도이며, 원가족에 대한 인식이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서로 격려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원가족 건강성을 측정하기 Choi(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 중 원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건강성을 측정에 대한 문항으로 Ha(2007)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원가족들의 의견존중,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겹고 즐거운 가족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합이 높을수록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676이었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733으로 나타났다.

(3)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써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유능하게 양육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하거나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Gibauc-Wallston and Wander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Shin(1997)가 수정·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효능감 문항내용은 좋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부모역할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 정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은 것이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19였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638로 나타났다.

3) 부부관계 변인

(1) 배우자 유사성

부부의 유사성은 부부가 가치관, 생활방식, 취미성향, 흥미 및 태도 등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배우자와의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Kim(1999)의 연구에서 사용된 좋아하는 행동, 여가, 애정표현, 갈등해결방식의 유사성의 4문항과 가치관, 역할, 의사소통, 교육수준, 종교, 수입, 본가의 집안수준 등의 7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05였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803으로 나타났다.

(2)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받는 도구적,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인 측면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Lim(200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척도 내용은 집안일, 심부름 등의 도구적 지지, 슬프거나 우울할 때 의지가 되어주는 정서적 지지와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09였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910으로 나타났다.

(3) 회복시도

회복시도란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화해시도의 인지정도를 의미한다. 부부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배우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내고, 부부 사이에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과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회복시도척도는 가트만(Gottman, 1999)이 개발한 척도를 Hong(2006)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복시도는 부부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며, 갈등 해결을 위한 효과적 방법을 제안하며, 자신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갈등 시에도 유머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시도 기술이 많음을 의미한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26이었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934으로 나타났다.

4)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은 현재 결혼생활에서 얻어지는 상

Table 1. Variable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couple		range	M(SD)		
		husband	wife				
Marital satisfaction	10	.802	.913	14.0	50.0	3.92(.71)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10	.910	.777	22.0	49.0	3.81(.62)
	Healthy of origin of family	16	.676	.733	25.0	80.0	3.65(.61)
	Parenting efficacy	9	.719	.638	14.0	45.0	3.52(.62)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11	.805	.803	14.0	55.0	3.25(.60)
	Spouse support	9	.909	.910	12.0	45.0	3.91(.72)
	Recovery attempts	20	.926	.934	20.0	100.0	3.44(.62)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10	.661	.661	12.0	48.0	2.63(.77)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10	.710	.674	14.0	50.0	3.77(.70)

황이나 관계와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대안적 상황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은 대안의 수준과 결혼해체장애가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대안비교수준과 결혼해체장애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1) 대안비교수준

대안비교수준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 독립하여 생활을 고려하거나,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로 대체하고자 하여 이혼, 재혼, 외도 등의 결혼 외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을 척도는 레빙거(Levinger, 1980)의 연구와 우드리(Udry, 1981)의 결혼대안척도(Marital Alternative Scale)를 토대로 구성된 Seo(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리적 극복에 관하여 묻는 문항, 다른 배우자의 대체가능성을 측정하는 문항, 경제적 독립가능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661이었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661으로 나타났다.

(2) 결혼해체장애

결혼해체장애는 결혼을 끝내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들을 말한다. 장애는 내적장벽과 외적장벽으로 유형이 나누어진다. 내적장벽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결혼을 해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장벽은 경제적 독립이 불안정하거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장애들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척도는 레빙거(Levinger, 1980)의 연구와 Sabateli와 Cecil-Pigo(1985)의 척도를 Seo(2008)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지속에 대한 가치관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 장벽

에 대한 6개 문항,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의 물질적 장벽에 대한 2개 문항, 결혼지위 상실에 대한 불안 등의 정서적 장벽에 대한 2개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해체 장애를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남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10이었고, 부인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674으로 나타났다.

5)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회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소득, 결혼기간, 자녀수, 가족유형, 맞벌이 유무를 포함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남편과 아내 연령별 분포의 경향을 살펴보면, 모두 30세 이상 39세 이하가 남편과 아내 33.7%, 33.2%로 가장 많았으며, 40세 이상 49세 이하의 남편과 아내는 26.6%, 32.1%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남편과 아내도 7.6%와 4.3%를 차지하였다. 남편과 아내의 30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남편 70.1%와 아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의 남편은 29.9%, 아내는 48.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남편은 전문직 및 사무직이 51.6%, 아내는 가정주부가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남편은 영업직·생산직·자영업이 44.6%, 아내는 전문직 및 사무직이 34.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을 갖고 있는 아내가 전문직 및 사무직의 아내가 영업직·생산직·자영업의 아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교적 특성으로는 남편은 무교가 41.8%로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Variables	Groups	husband (n=184)		wife (n=184)		Variables	Group	husband (n=184)		wife (n=184)		
		n	%	n	%			n	%	n	%	
Age (year)	20-29	5	2.7	16	8.7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55	29.9	90	48.9	
	30-39	62	33.7	61	33.2			College of moren	129	70.1	94	51.1
	40-49	49	26.6	59	32.1		Christianity		49	26.6	64	34.8
	50-59	54	29.3	40	21.7				Catholic	22	12.0	39
	60 or more	14	7.6	8	4.3		Buddhism	32		17.4	32	17.4
Occupation	Professional, Clerical	95	51.6	63	34.6	Religion	No	77	41.8	48	26.1	
	Service or production, Self-employed	82	44.6	32	17.6		etc.	4	2.2	1	0.5	
	Housewife	1	0.5	73	40.1							
	Unemployed	6	3.3	14	7.7							

Table 3. Family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Variables	Group	n	%	Variables	Group	n	%
Marriage Duration	10 or less	66	35.9	family income (won)	3,000,000 or less	30	17.2
	10-20 years	47	25.6		3,000,000 - 4,000,000	43	24.7
	20-30 years	50	27.2		4,000,000 - 5,000,000	41	23.6
	30 or more	21	11.4		5,000,000 or more	60	34.5
number of children	0	30	16.3	dual career	Yes	103	56.6
	1	49	26.6		No	79	43.4
	2	82	44.6	family type	couple	36	19.6
	more 3	23	12.5		couple+children	131	71.2
				couple+children+parents	17	9.2	

주. 총 사례수는 무응답을 제외하였으므로 차이가 있음.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가 26.6%, 불교 17.4%, 천주교 12.0%, 기타 2.2% 순이었으며, 아내는 기독교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교가 26.1%, 천주교가 21.2%, 불교가 17.4%, 기타 0.5% 순이었다.

가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부부의 결혼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35.9%,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27.2%,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5.6%, 30년 이상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자녀가 2명인 부부는 44.6%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1명인 부부는 26.6%, 자녀가 없는 부부는 16.3%,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부는 12.5%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에서 2명인 부부가 전체 71.2%로 나타났다. 가족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34.5%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했으며,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4.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23.6%, 300만원 미만이 17.2% 순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가 56.6%로 외벌이 부부 43.4% 보다 높았다.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로 구성된 가족이 19.6%, 부부와 자녀 그리고 시/친정부모로 구성된 가족이 9.2%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변인들을 밝히기 위해 SPSS PC 17.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부부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 변인, 개인자원 변인, 부부 상호작용 변인,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변인의 부부간 차이가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관련변인의 경향성 부부차이

조사대상자의 관련 변인에 따라 부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관련 변인의 부부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만족도($t=4.370, p<0.001$), 배우자지지($t=3.921, p<0.001$), 대안비교수준($t=2.535, p<0.05$), 결혼해체장애($t=-4.132, p<0.001$) 변인에서 남편과 아내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남편($M=4.08$)이 아내($M=3.7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370, p<0.001$). 즉, 남편은 결혼생활이 자신에게 있어서 이익이 된다고 인지하는 반면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편의 결혼만족도 경향이 사회교환이론의 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배우자지지는 남편($M=4.05$)이 아내($M=3.76$)보다 유의미

하게 높았는데($t=3.921, p<0.001$) 남편은 아내보다 배우자로부터 건강에 대한 염려나 집안일의 도움, 정서적 안정적인 측면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객관적인 배우자지지의 정도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임으로 아내에게 남편의 지지가 적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지지받고자 하는 기대수준과 현재의 지지정도 등을 동시에 감안하여 배우자지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안비교수준은 아내($M=2.79$)가 남편($M=2.46$)보다 높게 지각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535, p<0.05$). 결혼해체장애는 남편($M=3.87$)이 아내($M=3.68$)보다 높게 지각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4.132, p<0.001$). 남편은 현재의 결혼 외의 대안을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정도가 아내에 비해 낮으며,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 즉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인 내적 장벽과, 사회적 통념 및 자녀에 대한 책임감 등의 외적 방해요인에 대한 지각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안의 비교수준에 대한 부부의 차이는 남편이 현재의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만족을 아내보다 높게 지각하게 된 근거가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조사대상자의 자기/배우자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자원 변인,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Paired-t of Variables

Variables		husband	wife	Paired-t
		M(SD)	M(SD)	
Marital Satisfaction		4.08(.65)	3.76(.74)	4.370***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3.83(.55)	3.79(.52)	.674
	Healthy of origin of family	3.67(.60)	3.64(.63)	.462
	Parenting efficacy	3.47(.63)	3.56(.60)	-1.368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3.28(.59)	3.22(.61)	t.943
	Spouse support	4.05(.61)	3.76(.78)	3.921***
	Recovery attempts	3.48(.62)	3.40(.61)	1.250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2.46(.78)	2.79(.73)	2.535*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3.87(.71)	3.68(.69)	-4.132***

* $p < .05$, *** $p < .001$

부부관계 변인,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결혼해체장애 변인을 개별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관련변인 모두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60을 넘는 가족생활 주기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다. 그리고 각 회귀무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회귀모형에서는 DW계수가 1.5~1.9로 자기회귀 현상의 가능성이 낮아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의 VIF 값은 최고 1.8로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아 독립변인간의 상관성이 없어서 적절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본인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본인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변인별로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남성과 아내 각각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다. 각 변인별 설명력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결

혼만족도에 대한 개별 변인의 설명력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5%를, 개인자원 변인은 27%의 설명력을, 부부관계변인은 60%, 대안관련변인은 22%의 설명력 보였다.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변인을 개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인구사회학적변인은 13%를 설명력을, 개인 자원변인은 21%를, 부부관계변인은 57%를 설명하였으며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변인은 16%의 설명력을 나타내서 변인별 양상이 비슷하게 부부관계변인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각각의 변인별 구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의 요인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개인자원변인인 자아존중감($\beta=.258, p<.01$), 부모효능감($\beta=.237, p<.01$), 원가족건강성($\beta=.153, p<.05$) 모두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남성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부모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수록, 원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beta=.258, p<.01$). 부부관계변인 역시 배우자 지지($\beta=.482, p<.001$), 배우자 유사성($\beta=.223, p<.001$), 회복 시도($\beta=.208, p<.01$) 모두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로부터 지지받고, 서로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회복시도를 적

Table 5. Regression Analysis Self-variable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β	β	β	β	β	β	β	β	
Demographic variables	marital period	.041				-.163			
	child number	-.136				-.206*			
	income	.093				.075			
	dual career	-.045				-.118			
	age	-.085				-.013			
	education	.096				.018			
	occupation	-.053				-.222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258**				.248**		
	healthy of origin of family		.153*						
	parenting efficacy		.237**				.206*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482***				.405***	
	spouse support			.223***				.283***	
	recovery attempts			.208**				.222***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211**				-.134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371***				.354***
	R ²	.05	.27	.60	.22	.13	.21	.57	.16
	F	1.491	22.198***	89.478***	25.526***	4.136**	16.628***	79.129***	17.600***
	Constant	4.339	1.454	.538	3.212	3.860	.989	.521	2.733

* $p < .05$, ** $p < .01$, *** $p < .001$
 더미화: 맞벌이(무:0, 유:1), 직업(무:0, 유: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Spouse-variable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

Variables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β	β	β	β	β	β	β	β
Demographic variables	age	-.094				-.197*		
	education	.020				-.021		
	occupation	.019				-.158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134			.314***		
	healthy of origin of family		.117			.051		
	parenting efficacy		.208*			-.010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322***			.192*	
	spouse support			.038			.245*	
	recovery attempts			.264**			.078*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051			-.036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373***			.163*
	R ²	.01	.13	.29	.15	.08	.11	.19
	F	.762	9.384***	24.526***	15.922***	5.302**	7.422***	13.934***
	Constant	4.314	2.227	2.027	2.904	4.594	1.948	1.612

* $p < .05$, ** $p < .01$, *** $p < .001$
 더미화: 맞벌이(무:0, 유:1), 직업(무:0, 유:1).

절히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대안비교수준 관련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비교대안수준($\beta = -.211, p < .01$)과 결혼해체장애($\beta = .371, p < .001$)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고, 결혼해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일수록 현재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지각하고 있어 사회교환이론의 가설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내의 경우 구체적인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변인 중 자녀수($\beta = -.206, p < .05$)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개인자원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beta = .248, p < .01$)과 부모효능감($\beta = .206, p < .05$)이었고 남편과 달리 원가족건강성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내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beta = .248, p < .01$),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beta = .206, p < .05$)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아내의 부부관계 변인 중 배우자 지지($\beta = .405, p < .001$), 배우자 유사성($\beta = .283, p < .001$), 회복시도($\beta = .222, p < .001$) 모두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아내 역시 남편과 유사하게 배우

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이 배우자와 유사한 가치관과 행동을 한다고 인지할수록, 부부갈등의 회복하는 능력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결혼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또,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변인 중 결혼해체장애($\beta = .354, p < .001$)이 결혼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현재 결혼을 깨뜨릴 수 없는 방해요인을 더 많이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배우자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다. 배우자의 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남성은 1%로 매우 미미하였고 여성 역시도 8%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개인관련변인의 경우 남성은 배우자 변인의 개인자원변인이 13%를, 여성의 경우 배우자 변인이 투입되어 11%를 설명하여 남성이 아내의 개인자원변인이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더 큼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 변인의 배우자 측면을 투입한 결과 남성은 29%의 설명력을 아내는 19%로 나타났고 대안의 비교수준 변인은 남성은 배우자 변인이 15%, 부인은 3%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 자기변인에 비해 배우자변인의 영향력은 남성의 경우가 여성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을 살펴 보면, 개인자원 변인 중 아내의 부모효능감($\beta=.208, p<.05$), 부부관계변인에서는 아내의 배우자 지지($\beta=.322, p<.001$)와 회복 시도($\beta=.264, p<.01$)가, 대인의 비교수준 변인에서는 배우자의 결혼해체장애($\beta=.373, p<.001$)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내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 시도능력이 클수록, 결혼해체장애요인을 크게 지각할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8, p<.05$).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으로는 개인자원변인이 남편의 자아존중감($\beta=.314, p<.001$), 배

우자의 부부관계변인인 남편의 배우자 지지($\beta=.192, p<.05$), 남편의 배우자 유사성($\beta=.245, p<.05$), 남편의 회복 시도($\beta=.079, p<.05$)가, 남편의 결혼해체장애($\beta=.163, p<.05$)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배우자 지지가 크고, 배우자 유사성 지각이 높고 회복 시도를 잘할수록, 남편이 결혼해체 장애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3) 관련변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지금까지 개별투입 되었던 모든 변인들의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주게 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Table 7>과

Table 7.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Couple

variable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marital satisfaction of wife		
	β	β	β	β	
self	marital period	-0.073		-0.181	
	child number	-0.028		-0.036	
	income	-0.001		.042	
	Demographic variables	dual career	-0.128*		-0.154*
		age	-0.095		-0.044
		education	.042		-0.016
		occupation	-0.027		.089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228***		.131*
		healthy of origin of family	.075		-0.024
		parenting efficacy	-0.028		.043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308***		.332***
		spouse support	.164**		.192**
	recovery attempts	.227***		.224***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0.226***		-0.212***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092		.089	
spouse			age	-0.131	
	Demographic variables		education	-0.030	
			occupation	-0.034	
			self-esteem	.041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healthy of origin of family	.019	
			parenting efficacy	.060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266**	
			spouse support	-0.012	
			recovery attempts	.180*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0.104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218**	
	R^2	.70	.35	.69	
	F	24.249***	8.238***	23.004***	
	Constant	.736	2.019	.752	
				2.118	

* $p < .05$, ** $p < .01$, *** $p < .001$
 더미화: 맞벌이(무:0, 유:1), 직업(무:0, 유:1).

같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자기변인이 투입되어 70%를 설명하였으며, 배우자 변인이 투입되어 35%를 설명하였다. 아내는 자기변인이 투입되어 69%를 설명하였고, 배우자 변인이 투입되어 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변인과 상대방 변인의 설명력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모두 자기변인이 상대방 변인보다 결혼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변인 모두를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자원 변인, 부부관계 변인을 각각 투입하였을 때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변인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beta=.308, p<.001$), 회복 시도($\beta=.227, p<.001$), 결혼대안수준($\beta=.226, p<.01$), 자아존중감($\beta=.228, p<.001$), 배우자 유사성($\beta=.164, p<.01$), 맞벌이 유무($\beta=-.128, p<.05$)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아내의 배우자지지($\beta=.266, p<.01$), 아내의 결혼해체장애($\beta=.218, p<.01$), 아내의 회복 시도($\beta=.180, p<.05$)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홀벌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호간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신이 배우자와 비슷하다고 인지할수록, 부부 모두가 회복시도를 잘한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결혼이 원만하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자신의 결혼의 대안이 많지 않을수록, 아내가 결혼해체장애 요인을 많이 가졌다고 인지할수록 현재

결혼을 주관적으로 더 만족스럽게 여기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변인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beta=.332, p<.001$), 회복 시도($\beta=.224, p<.001$), 결혼대안수준($\beta=.212, p<.001$), 배우자 유사성($\beta=.192, p<.01$), 맞벌이 유무($\beta=-.154, p<.0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자아존중감 변인에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대방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남편의 자아존중감($\beta=.322, p<.001$), 남편의 연령($\beta=-.264, p<.001$), 남편의 배우자 유사성($\beta=.203, p<.0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홀벌이일수록, 상호간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신이 배우자와 비슷하다고 인지할수록, 부부 모두가 회복시도를 잘한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결혼의 대안이 많지 않을수록 자신의 결혼이 원만하고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 남편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편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편이 배우자와 유사하다고 인지할수록 자신의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3. 조사대상자의 관련변인 차이가 결혼만족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관련변인의 부부차이가 결혼만족도 차이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이 부부간 차이 변인이 50%의

Table 8. Regression Analysi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Difference of Couple

Variables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β	
Demographic variables	age difference	-.043
	education difference	.092
	occupation difference	.038
Individual resource variables	self-esteem difference	.100
	healthy of origin of family difference	.040
	parenting efficacy difference	.071
Couple relationship variables	spouse similarity difference	.335***
	spouse support difference	.224***
	recovery attempts difference	.227**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 variables	level of marital alternatives difference	-.289***
	marital dissolution disability difference	-.012
	R ²	.50
	F	15.331***
	상수	.157

p < .01, *p < .001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부부간 결혼만족도 차이에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자원 변인, 부부관계 변인,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 변인들의 부부간 차이를 투입한 결과, 남편과 아내의 배우자 지지 차이($\beta=.335, p<.001$), 배우자 유사성 차이($\beta=.224, p<.001$), 결혼대안수준 차이($\beta=.289, p<.001$), 회복시도 차이($\beta=.227, p<.01$)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지지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배우자 유사성 지각의 차이가 클수록, 결혼대안 수준의 차이가 작을수록 결혼만족도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회교환론적 관점변인을 포함하여 부부쌍방간의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생활만족도가 부부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남편이 아내보다 높았다는 측면은 유사하였으나(Hong, 2005; Park, 2001; Jang, 2008) 다른 변인들의 남녀차이에서 남성은 배우자로부터 지지가 많다고 지각하고, 결혼해체에 대한 장애수준도 높았으며, 결혼대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현재의 결혼을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함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자원변인이 아닌 부부관계변인과 대안관련변인에 대한 지각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지각을 함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안의 비교수준에서 남편들은 현재의 결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적게 생각하고 결혼을 깨뜨렸을 때 위험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을 때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은 남편의 경우 사회교환론적 가설의 일부인 대안의 비교수준 지각이 현재의 관계를 유지 또는 해체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부관계변인이나 개인자원변인이 부부 모두에게 교환자원으로서 보상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수 없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아내는 남편보다 배우자지지가 낮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결혼해체장애도 낮았고, 결혼대안수준은 높아서 가정 내외의 스트레스나 위험요소에 따라서는 결혼생활의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였다. 이는 아내의 현재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남편의 지지변인을 강화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지받고자 하는 기대와 현실에서 남편의 지지정도가 부합되지 못할 때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남편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며, 아내 역시 배우자로부터의 지지요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외부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부부 상호지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결혼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부교육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있어 상호작용 변인이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이 밝혀진 점이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 변인인 배우자지지, 배우자유사성, 회복시도 변인은 모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것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적 특성과 같은 주변적 요인이 아니라 부부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많은 조건들이 실제 결혼생활을 통해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의 증진이 신뢰와 친밀감이 쌓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에 대한 만족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부부의 다름을 인지시키는 프로그램보다는 서로 유사한 점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실천적 전략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부가 서로 비슷한 면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공통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부대상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부가 공통점을 개발하거나 발견하여 서로에게 생활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회복시도의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는 부부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가트만(Gottman)이 제시하고 있는 갈등관리의 화해시도 또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바람직한 화해시도를 위한 기술을 제안하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부부갈등이나 싸움과 화해시도의 관련성에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부부갈등대처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긍정적인 화해시도를 할 수 있는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가트만의 전략들은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맞지 않아 역기능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보일 수 있음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부부의 갈등회복을 위한 기술을 부부들에게 훈련하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부부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적을수록 더 높음이 밝혀진 만큼 부부가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화해시도에 대한 상호만족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상호지지를 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관계향상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결혼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자원변인과 대안의 비교수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개인자원

변인 중 자아존중감과 원가족건강성의 영향력은 선행연구(Chio et al, 2002; Lee, 2009; Park et al, 2005; Shin, 2007)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 개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는 자원으로 만족스러운 결혼을 추구하기 원한다면 결혼 전부터 이를 위한 개인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예비부부교육을 통해서 결혼당사자의 건강하고 성숙한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또, 대안의 비교수준 변인 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혼현상이 될 수 있다. 이혼은 불행한 결혼의 또 다른 선택일지라도 이혼과정과 이후의 삶에 대한 적응과정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임으로 충동적인 이혼선택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불행하다고 여기는 결혼생활을 종료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인 대안선택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부역량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부간 배우자 지지, 배우자 유사성, 회복시도, 결혼대안수준에 대한 인식차이가 클수록 결혼만족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즉, 부부 상호작용 정도에 대한 부부 각자가 유사성을 높게 지각하고, 회복시도를 잘 하며 결혼의 대안수준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관계는 부부 한쪽 일방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행동보다는 상호간의 긍정적이고 원만한 지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이 중요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부부간의 상호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서로에 대한 지지나 유사성, 회복시도 등이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원만한 대화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변인과 배우자 변인의 사회교환론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다른 시사점과 의의점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있음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부부로 표집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상을 표집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과 배우자변인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변인이 있을 수 있음으로 추후에 다른 관련변인과 분석의 다양한 시도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REFERENCES

유계숙 · 최연실 · 성미애(2003). **가족학이론-관점과 쟁점**. 서울: 도서출판 하우.

통계청(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한국가족관계학회(2002). **가족학 이론**. 서울: 교문사.

Cha, Y. S.(2004). *Influences of stepmothers' role strain on marital satisfaction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pousal support*. master's thesis,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Choi, E. K.(2008). *Satisfaction among married women by the mate selection method*. master's thesi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aiChai University, Seoul, Korea.

Choi, H. M.(1997). *Study of the family-of-origin scale with a sample of couples in their early marriage*.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Cho, J. E.(2006). *A study on the changing factors which can influence a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couples - The subject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Choi, J. H. & Koo, M. K. & Choi, I. C.(2002). The effect of relationship-serving perceptions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 In case of marriage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Kor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6(3), 53-74, Seoul, Korea.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 based marital therapy*. W. W. Norton & Company, N.Y., London.

Gottman, J. M., Notorius, C.(2000). Decade review: Observing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927-947.

Ha, S. H.(2007).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the family-of-origin health and self-differenti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Seoul, Korea.

Hong, M. K.(2009).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yadic adjustment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to Korean m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uple's commun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ong, S. K.(2006). *A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nd Korean couples based on Gottman's theory*.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Jang, S. U.(2008).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marital intimacy and parent-child relation*. master's thesis, Chonbuk University, Seoul, Korea.

Jeon, M. J.(2003). *The relation between spouse simila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E. A.(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al satisfaction depending on the number of children*.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H. N.(2009).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 male who married with foreign women*.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S.(2001). A Theoretical Review for developing a Korean Type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1), 89-106, Seoul, Korea.
- Karney, B. R., & Bradb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ng, J. E.(2008). *Relation of marital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and parenting efficacy among middle class fathers in Seoul*. master's thesis,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D. S.(1994). A social exchange view -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of young married people. *research report of Home university*, 20(12), 25-34, Seoul, Korea.
- Kim, D. Y.(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atir's communication patterns,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Politics Management S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J.(2007).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rules,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gender equality awarenes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people*. master's thesis, The Fraduate School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1999). *A study on the process of value-search-comparison on the courtship - focused on working women*.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W. Communication Pattern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Elderly Couples. master's thesis, Seo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o, J. A.(2004). *The influence of sexual satisfaction, communication, and sex connected communic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master's thesis, Professional Therapeutic Technology Seoul Womo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H.(2006).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marital satisfaction, at different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master's thesis, Industry and Information of Mokwo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B. I.(2007).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marital instability to its related variable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2002). *The effect that the mothers' marriage satisfaction level in christian families affects the attitude bringing up their infants*.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E. Y.(2009). *Relationship study of women's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hungang Administration University, Seoul, Korea.
- Lim, S. Y.(2001). *A study on marital stress and marital instability of elderly couples*.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Nam, K. I.(2009). *The effects of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on marital satisfaction - Focused on partner's level of differentiation of self*.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H. & Ko, J. H.(2005).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65-83, Seoul, Korea.
- Seo, J. S.(2007). *Actor-partner effect of forg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S. J.(2007). *Effects of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hing, H. J.(2007). *Effects of emotional climate in family of origi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role competence o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aster's thesis, Education Chungbuk University, Seoul, Korea.
- Suh, H. J.(2008). *Study on the marital quality and marital stability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J. S.(2004).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al intimacy, self-esteem and family-of-origin's health*.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Yeo, J. A.(2009). *Effects of the internal representation for the parent in childhood o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marriage*. master's thesis, Welfare Counseling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Yoo, S. S.(2003).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marital satisfaction of elderly couples*. master's thesis, Social welfa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접수 일 : 2013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13년 04월 03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5월 28일